

【호우 재해가 가져온 교훈】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.

7월 5일 부터 7일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오카야마현에서는 처음으로 특별 경보가 발령되고 1 급 하천의 제방의 붕괴와 내수로 인한 침수피해, 도로의 갓길과 토사붕괴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. 특히 마루밀과 마루위 침수 합해서 7,600 채 이상이 재해를 입은 침수 피해는 크고 지금도 대피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

그리고 피해가 적다던 오카야마에 큰 피해를 가져온 전에없던 호우피해는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.

첫 번째는 치밀한 방재대책의 중요성입니다

지금까지 아사히가와 강의 방수로인 핫젠가와 강이나 사사가세가와 강의 호안 정비와 제방을 쌓아올림, 배수 펌프 준비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대책이 충분한 곳에서는 제방의 무너짐이나 범람이 일어나지 않고 대 참사를 면할 수 있었다.

그렇지만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스나가와 강의 제방 붕괴와 배수 능력이 낮은 사사가세가와 강 서쪽의 대규모 침수 등 다시한번 방재대책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이후, 효과작인 방재 대책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.

두 번째는 「사람과의 연결」의 중요성입니다.

저는 재해발생 직후는 전체 진두지휘에 집중했습니다만 그후 주초부터

5 일간에 걸쳐 재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.

거기서 방대한 피해를 보며 경악을 했습니다만 그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피해지를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합해져 많은 피해자와 봉사자, 이웃 마을 분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이 움직이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.

또 나라와 현, 자위대원은 물론이고 피해를 입은 시직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피해 대책에 임하는것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오카야마시는 이처럼 큰 피해를 경험한것은 평성년도가 되어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시 대응 등도 포함해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.

이후 이번 피해를 교훈으로 하나하나 과제를 검증하면서 같은 피해로 인한 시민생활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

피해로 부터 약 2 주간 많은 봉사자와 마을 주민, 민간 사업자 분들이 힘을 합하여 오카야마시 체제로 복구 작업을 한 결과 정말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일상 생활을 찾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이 전대미문의 호우피해로 부터 하루라도 빨리 복구되어 재해에 강하고 안심, 안전한 오카야마시를 만들기 위해 이후도 직원일동 전력으로 임하고자 합니다.